

창조와 진화 발표 원고

이름: 박마루

진화든 창조든 상관없이 지구에서 땅을 파면 이런 순서로 지층이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지금 드림이 학교 화단을 파도 아프리카에서 땅을 파도 미국이든 어디든 땅을 파면 이 사진과 같은 지층들이 나옵니다.

진화론에선 고생대의 시작점을 캄브리아기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퇴적층 원생대와 시생대는 선캄브리아기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정리는 잘 해놓았지만 왜 이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시생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생대는 진화론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추측하는 곳입니다. 시생대에는 반듯한 퇴적지층이 없으며 단 한개의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만 최소 100억개가 넘는데 이 시생대 시대에는 아무런 화석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무런 생물체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원생대입니다. 원생대때는 반듯한 퇴적 지층이 생겼으며 화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고생대때에도 원생대와 마찬가지로 반듯한 지층이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점은 화석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미비하고 어정쩡한 형태의 화석이 아닌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있는 생명체들이 발견됩니다. 진화론에서도 고생대의 시작을 생명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지질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시생대에 없던 반듯한 지층이 원생대에 생기고 원생대에서 캄브리아기로 넘어갈때 급격히 엄청나게 많은 화석 즉 생명체가 생겨났다는것을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에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렇게 고생대의 완벽하게 디자인 되어있는 생명체들의 조상으로 볼수있는 생명체들 쉽게말해 고생대에서 발견된 화석보다 어정쩡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화석들이 반듯이 시생대, 원생대에서 발견되어야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화석은 선 캄브리아기에 단 한개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즉 고생대 시대에 완벽하게 디자인된 박테리아인지 어류인지 원지 구분못하는 그런것이 아닌 뚜렷히 구분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생대와 원생대 고생대를 보여주는 지층을 가진 대표적인 예로는 그랜드캐니언이 있습니다. 사진 맨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시생대 입니다. 퇴적지층이 없으며 화석도 물론 없습니다. 두번째로 원생대 부분 여기 퇴적지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떠한 화석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퇴적지층 보이시나요? 이곳이 고생대이며 지층도 명확히 보이고 완벽히 디자인된 화석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침식 후에 또다시 퇴적, 퇴적 후에는 또다시 침식이 반복되면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가 이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가 너무나 가지런하게 수평을 이루며 쌓여 있습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가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이고 걸쳐 쌓였다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쌓일 수가 없을것 입니다.

오랜시간동안 쌓여서 반듯한 퇴적지층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면 반듯한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피에르 줄리안이라는 지질학자는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드려면 오랜시간이 아닌 단시간에 모래나 흙같은 입자들이 순식간에 쌓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엄청난 량의 물과 함께 입자가 휩쓸리며 격변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 사건도 있는데요 1980년 세인트 할렌 산이 폭발하였고 그로인해 산위에 있던 엄청난 량의 빙하와 산속의 지하수, 흙탕물, 마그마가 산아래쪽으로 순식간에 쏟아져내려오면서 단 3일만에 반듯하고 거대한 퇴적지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천지창조를 하시는 6일간 어떠한 지층이 생겨났을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날 땅을 만드셨지만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날또한 퇴적지층이 생길만한 사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날을 보시면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라고 되어있는데 물 아래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땅을 덮고 있던 엄청난 량의 물들이 강한 물살로 땅을 휩쓸며 낮은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에 본것처럼 반듯한 퇴적지층이 생겼을것 이다 라고 추측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체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리고 다여섯째날 생명을 만드십니다. 천지창조 첫째날, 둘째날 에는 지층도 없고 생명도 없죠 그래서 이 두 날들을

시생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날 땅을 물위로 들어내시며 지층이 생겨났죠 하지만 생명체는 없습니다. 퇴적지층은 있고 생명에 대한 화석이 없는 지층 바로 원생대라고 추측하고요. 고생대가 시작될때 엄청난량의 화석이 발견되는 이 부분을 생명을 만드신 다섯째날 여섯째 날이라고 보는것 입니다. 그러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즉 퇴적지층도 있고 생명체도 있는 이 지층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이 지층은 대홍수 심판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량의 물과 격변이 필요하죠 그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땅의 지하수 가 화산이 폭발 하듯이 땅을 뚫고 분출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 강력한 물살이 백 오십일간 땅을 흐트러뜨리며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구에 있는 퇴적지층이 이 **150**일간 다 만들어졌다고 볼수있는것 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퇴적지층의 미스테리들을 성경으로 해석, 추측 해볼수있습니다.